

“IS처럼 복면시위 안돼” 박근혜 대통령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있다” 문재인 대표

올 한 해에도 여러 이슈가 제기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말들이 한국사회를 담갔다. 정치·사회 분야에선 그러한 말들이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주변 사람들을 조명하거나 촌철살인의 묘미를 느끼게 했다. 경제 분야에선 금융정책과 대기업 경영권을 비롯한 현안에 관심이 쏠렸다. 문화 예술인들의 환호와 파문은 웃음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선사했고,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승패를 알 수 있는 스포츠는 그런 진리를 새삼 확신하게 해 줬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 말들이 오갔던 현장을 되짚어봤다.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통통 불어터진 국수다”(박근혜 대통령, 2월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서 경제 최우선을 강조하며)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성이 될 수밖에 없다”(박근혜 대통령,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박근혜 대통령, 11월24일 국무회의에서 폭력 시위를 비판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이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9월10일 기자간담회를 자칭해 둘째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도 차녀와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되어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도,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다음 재 역할은 없다.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제 앞에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2월5일

▲“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6월23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진원지로 지목받자 자신의 생일날 공식석상에서 육성으로 처음 사과문을 발표하며)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뻗었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중앙대 재단 이사장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중앙대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3월24일 보낸 이메일에서)

▲“학부모들이 모든 걸 다 해줘서 우리 학생들은 일종의 결정 장애를 앓고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4월29일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학생들을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키워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 것도 없다”(이완구 전 국무총리,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 수수한 혐의로 5월14일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를 받고자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라고 해라”(박원순 서울시장, 5월 27일 서울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찰이 광화문광장의 세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왼쪽)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지분 99%를 생전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아내 프리실라 찬과 함께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는 사진과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렸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캡처>

“땅에 묻지 말아 주세요” 전쟁 참상 알린 예멘의 여섯 살 아이

국외

▲“모든 부모들처럼 우리는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 모든 어린이를 위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단다”(세계 7대 부호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부인이 12월 1일 첫딸 맥스의 탄생을 기념해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가 450억달러, 약 52조원 규모의 페이스북 지분 99%를 생전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당신은 결코 나의 중요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와 17개월 된 우리 아이들은 공포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11월 13일 파리 카페와 극장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로 아내를 잃은 남성 앙투안 레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감으로써 테러범을 모욕하겠다고 말하며)

▲“프랑스는 전쟁 중이다. 아랍인들은 절대 프랑스의 영혼을 망치지 못한다.”(프랑스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11월 16일 베르사유궁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테러를 자행한 극단적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모기뿐이다.”(프란치스코 교황, 11월 26일 아프리카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순방 중 방탄차를 타거나 방탄조끼를 입지 않기로 한 교황이 테러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고)

▲“땅에 묻지 말아 주세요.”(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공습으로 다친 예멘의 여섯 살 어린이 파리드 사키가 공포에 질려 의료진에게 애원한 말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사키는 끝내 숨겨 땅에 묻혔다.)

▲“유럽연합에는 유럽도 없고 연합도 없는 것 같다.”(쿠르디의 시인이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 원장이 회원국들에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면서.)

▲“평범한 미국인들은 챔피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가 그 챔피언이 되고 싶다.”(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4월 12일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지금은 2015년이기 때문이다.”(쥘스탕 트뤼도 캐나다 총리, 11월 5일 새 내각에서 여성이 절반만 차지한 이유가 무엇 이냐는 질문을 받고)

▲“등에 칼을 맞았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1월 24일 터키가 자국 영토 침범을 이유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자 테러리스트 조직자들로부터 등에 칼을 맞은 격이라고 비유하며 터키를 맹비난.)

▲“전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 그리고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8월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남독한 전후 70년 담화 중에서) /이종형기자 golee@



이탈리아 메시나 항으로 가는 해군 함정 난간에 구 조된 난민들.



파리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미국 록밴드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EODM) 멤버들.

야구는 해봐야 아는 것
결과는 끝나야 아는 것
김인식 야구국가대표 감독 ▶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베테랑 주연 황정민

전당대회 대표경선 중 성명을 내고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비판하고 때론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인내하며 제 길을 걸어왔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 12월6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전대’ 수용을 재요구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치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 없다.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3월30일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시안으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의 9월15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홍준하 의원이 질의·답변 시간 7분 중 질의에 7분을 거의 다 쓰고 7초만 남았으면서)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와서 분량칠 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 6월1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트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진주 목걸이가 떨어져 다 줌다고 해도 혹시 한두 개 빠질 수가 있다”(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6월5일 메르스 관련 브리핑에서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명하며)

호 유가족 시위 전막 건으로 임종석 정부부시장을 조사한 데 불쾌감을 드러내며)

▲“우리 딸은 공무원으로서 학생을 인솔하다가 희생됐다. 죽어서까지 차별해야 하나”(세월호 참사로 희생됐으나 기간제라 서 순직 대상에서 제외된 김초원 단원고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 6월23일 순직신청서(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며)

▲“소나기가 오면 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성완중 리스트란 울무에 얽혀 있다”(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윤호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성완중 리스트’에 오른 흥준표 경남도지사가 의혹을 부인하며 쏟아낸 말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결그룹 주원리 예원, 2월24일 제주도에서 MBC TV 예능 프로그램 ‘따뜻갑네기 과외하기’ 촬영 도중 배우 이태임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너 어디서 반말하니?”라는 이태임에게 이갈이 응수하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자존심이라는 뜻으로 쓰인 속어)가 없나”(8월5일 개봉한 영화 ‘베테랑’에서 광역수사대 경찰 서도철(황정민)의 명대사로 율 한해 많은 화제를 낳았음)

▲“야구는 해봐야 아는 것이고, 결과는 끝나야 아는 것이다”(김인식 야구국가대표 감독, 11월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 준결승전에서 일본에 극적인 4-3 역전승을 이끈 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병원최적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적합

- 전용 289㎡ (2/3 현재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꿨습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친절하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별군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